

(새) (해) (설) (계)

# 적정면적재배와 품질향상에 주력해야

◎ **不況 극복을 위한 果園 경영계획**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金 鍾 天

## 1. 取支따리 받치할 수 없는 果樹

우리 나라의 국토는 22만km<sup>2</sup>(담한: 99,000km<sup>2</sup>)로 아주 작은 편이다. 그러나 북위 33도에서 43도까지 길게 뻗어 있는 반도이기 때문에 기상조건은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냉랭한 기후를 좋아하기 때문에 온도북부과수(溫度北部果樹)라고 취급되고 있는 사과로부터 온난한 기후에서만 재배가 가능한 상록과수인 감귤에 이르기까지 각종 과수가 다양하게 재배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과수재배는 약 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동안에 품종도 많이 바뀌었고 재배기술도 많이 진보되었으며 재배면적 및 생산량도 국제적 통계에 수록될 정도로 신장되었다.

과실가격은 생산량이 적었던 옛날에 비하면 점차 낮아져 왔지만 그래도 생산량을 전부 소비할 만큼 과실의 소비량도 증가되어 왔고 가격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과수재배 농가는 비교적 부유한 층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9년부터 기름파동으로 세계경기가 불황에 들어가기 시작함에 따라 국내에도 불경기 바람이 서서히 일기 시작하였고 그 영향은 과수재배에도 예외없이 찾아 왔다.

## 오일 파동 이후부터 시련 겪어

과실의 소비량은 제자리에 머무르게 되었고 생산량은 매년 증가되었기 때문에 과실 가격은 자연히 현상 유지 내지 하락현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러나 생산자재와 농기계 노력비 등은 해마다 인상되었기 때문에 과수계는 큰 시련에 부닥치게 되었다. 그렇다 하여 지금까지 가꾸어 온 과수원을 방치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과수는 1년만 관리를 소홀히 하여 조기낙엽(早期落葉)을 시키거나 각종 병해충의 밀도가 높아지면 그 영향은 그후 3년 동안이나 계속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하여 몇년 동안만을 돌보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불경기의 기간을 하루 속히 벗어나 새로운 수지맞는 과수농사로 이끌어 나가므로서 풍요로운 농촌을 과수재배를 통해서 이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할 것이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같이 합심하고 노력하여야 하겠다.

### 2. 불황기 不況期를 단축하자

하나의 산업이 발전하자면 대부분 어려운 고비를 슬기롭게 넘겨야 하

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과수농사도 바로 슬기롭게 넘겨야 할 과도기(過渡期)에 직면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과도기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슬기와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비를 굳건히 넘기는 사람은 앞으로는 더욱 수지맞는 과수농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국민 1인당 생과(生果)의 소비량을 보면 한국이 21.5kg, 일본이 36.8kg, 미국이 45.2kg이고 가공품의 소비량은 한국 1.2kg, 일본 10.1kg, 미국 96.5kg으로 우리나라의 가공과실의 소비량은 미국에 비하면 80분의 1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가공분야에 많은 과실을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국제시장에서의 과실가격이 우리나라 국내 가격보다도 낮은 편이며 또한 가공면에서도 기술의 향상, 새품목의 개발 등에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가공품의 소비가 대중화되어 많이 팔리기까지에는 많은 기간을 요하게 될 것이다.

## 현 여건하에서 경영체계 개선

따라서 우리 재배자들은 현재의

여건이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아 여기에 대응하여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새로운 방향으로 경영 체제를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의 예를 보아도 사과가격이 1955년부터 1965년까지 10년간 거의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생산비는 오르고 과일가격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재배자들이 큰 고통을 당하였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약 18%에 해당되는 1만여 정보의 사과밭 면적이 줄어들었고 또 나머지 면적도 큰 수지가 맞지 않는 상태로 겨우 유지되어 오다가 「후지」 품종의 출현에 따라 품종갱신을 시작함으로써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후 여러 가지 새로운 품종의 육성보급으로 현재까지도 그 면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런대로 수지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참고로 하여 현 시점에서 우리가 설계하고 실천하여야 할 몇가지 주요 사항을 들어 우리 나라 과수농업을 혁신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며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이런 계획을 실천하느로서 지금의 불황기를 단축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 3. 果樹園의 호황을 위한 경영策

#### 재배면적의 조절

약제, 비료, 노임 등의 생산비가 높아졌기 때문에 과수원의 면적은 곧 생산비의 증가를 피부로 느끼게 한다. 따라서 돈을 벌어주지 못하는 나무는 과감하게 제거하여 버리고 또 능력에 맞지 않게 넓은 면적을 가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은 자기 과수원 중에서 성적이 가장 좋지 않은 밭은 나무를 제거하여 버리고 다른 것으로 이용함으로써 과수원 면적을 줄여야 할 것이다.

#### 3~5천평의 가족중심 경영

현재의 실정을 보면 3천~5천평 정도의 적은 면적을 가지고 가족노력을 주로 하고 바쁠 때에만 품을 사서 부리는 정도의 경영을 하는 과수원은 모두가 수지를 맞추고 있다. 또 기업농 체제를 갖추고 모든 것을 완전히 기계화한 큰 과수원도 그런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그 중간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서 기계화하기는 좁고 인력으로 하기에는 너무 큰 4~5정보 내외의 과수원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금년에는 지금까지의 경영

◇ 不況 극복을 위한 果園 경영계획 ◇

실태와 수지타산을 고려하여 자기가 끌고 나가야 할 적정 규모를 정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  
**품종의 정리**  
.....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사과 품종 중 국광 26.4%, 홍옥 19.7% 도합 46%가 재배되고 있는데 이 품종들은 시중가격이 낮아져 수지를 맞추기 힘든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런 품종은 늙은 나무면 제거하여 버리고 15년생 이하이면 좋은 품종으로 고접갱신(高接更新)하여 품종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市場性 있는 품종으로 갱신**

사과 품종으로는 「모리스테리셔스」, 「비스타벨라」, 「쓰가루」, 「조나골드」, 「후지」 등이 비교적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등도 시장성이 좋은 품종으로 대처하거나 갱신시켜 같은 생산비를 들여서도 더욱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구상해야겠다.

.....  
**과실의 품질향상**  
.....

위에서 품종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아무리 좋은 품종이라 하더라도 그 품종의 특성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키우면 상품가치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좋은 품종일수록 맛을 낼 수 있는 관리를 하여 우량한 과실을 생산하도록 하여야겠다. 예를 들면 똑같은 「후지」 품종이라도 1상자에 5천원짜리도 있으며 1만원짜리도 있고 1단 5천원짜리도 있다.

**適果는 우량과 생산과 직결**

현재 우리 나라의 사과를 보면 대체로 1등급이 35~40% 정도 나오면 성적이 좋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정도로는 수지를 맞추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량과(優良果)를 60% 이상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세밀한 관찰과 계속적인 적과(摘果)를 하여야 한다. 대개 2회의 적과를 끝내고 마는데 자세히 보면 그 후에도 키울 가치가 없는 과실이 많이 달려 있어 이것이 다른 과실의 성장을 억제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앞으로는 2차 적과를 하였다고 방임해 두지 말고 항상 나무를 관찰하면서 우량한 과실 또는 너무 밀생된 과실을 계속 솎아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

서 적과는 사과와 늦은 품종에 대하여는 9월말까지도 계속 실시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앞에서 설명한 재배 면적은 능력에 맞게 조절함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과실의 품질을 고려하지 않고 수량만을 올리는 경영체제는 이미 먼 옛날의 일이요, 앞으로는 시장성이 높은 품질위주의 과실 생산만이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 생산비 절감계획

생산비의 절감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하여는 우선 생산비 중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약제 살포(藥劑撒布), 적과(摘果) 및 수확의 노력을 줄일 수 있도록 나무를 낮게 정지(整枝)하여야 한다. 너무 큰 나무를 만들지 말아야 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나무밀은 제초제 이용이 좋아

또한 풀잡는 기계와 같이 큰 돈이 안드는 기계를 먼저 구입하여 쓰고 조금씩 기계화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고 나무 밀은 제초제를 써서 풀을 없애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만 풀을

잡아주도록 하는 것이 좋다.

시비량(施肥量)도 너무 많아서 가지의 도장성(徒長性)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으니 잘 관찰하여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고 무모하게 비싼 닭똥이나 콩깨묵 등을 매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능이 좋은 저장고를 지어 과실의 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재배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왜화재배(矮化栽培)의 추진

충남 천원군 성거면에 가면 박 충일씨가 경영하는 경한농원이라는 작은 과수원이 있다. M9에 접목(接木)한 왜성(矮性) 사과밭 3천평에 약 1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 재배하고 있는데 재식 후 4년째에 1그루당 1상자씩을 수확하여 약 1천상자를 판매하였고 5년째에는 약 1천 5백상자를 수확하여 판매하였다고 한다. 품종은 주로 「쓰가루」 「후지」인데 좁은 면적에 많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이점과 나무가 작아 관리하기가 편리하다는 이점, 그리고 일찍부터 높은 수확을 올릴 수 있다는 왜성사과 나무의 이점이 제대로 나타나도록 관리하면 박 충일씨와 같

◇ 不況 극복을 위한 果園 경영계획 ◇

은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계획적인 왜성사과나무의 재배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함이 유리할 것이다.

### 우수 왜성대목 계속 육종돼

사과의 왜성대목(矮性臺木)은 영국에서 개발하여 1938년에 국제원예학회에서 연구소 이름의 약자를 따서 EM대목이라고 명명하게 되었는데 1972년 7월부터 M자로만 표시하도록 하였는데 현재 M1부터 M27까지 27계통이 육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세계적으로 양호하다고 인정받고 있는 대목은 M9, M26, M7, M27 정도이다. M계 대목이 면충에 매우 약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MM대목을 육성하였는데 이것도 MM101부터 MM115까지 15계통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는 MM106, MM111만이 재배가치가 높은 것으로 인정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77년부터 M계 MM계 왜성대목이 보급되기 시작하여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주로 M9, M26, MM106 등이 이용되고 있다. M9 및 M26은 나무 크기를 보통나무의 1/4이하로 왜화(矮化)시키고 M106은 1/2정도로 왜화시키는 대목이다.

이러한 왜성대목에 접목한 왜성사

과나무를 재배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여러가지 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으니 앞으로는 왜화재배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4. 군납 및 이동급식도 강구해볼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과수재배 현황과 당면한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등을 적어 보았다.

현재의 여건하에서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적하였으나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각자는 모두 자기가 처하여 있는 실정을 잘 분석하여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설계를 세워야 하고 그 대로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어느 나라나 이러한 불황기는 있는 것이며 이것은 대개 일시적인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하여는 과수재배자나 정부가 합심하여 적극적인 공동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먼저 재배자 측에서는 맛있는 과실을 생산하여 많이 팔리고 또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그러기 위하여는 품종갱신(品種更新) 재배면적의 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재배자의 수익을 높이기 위

하여는 생산비 절감(生産費節減)을 위한 기계화(機械化), 화학화(化學化) 및 병충해의 효과적인 방제법의 실시, 왜화재배의 실천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다. 또한 보다 성능이 좋은 저장고를 마련하여 과실의 출하량을 조절하므로써 과실가격의 하락을 서로서로 막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정부측에서는 과실의 소비증대를 위하여 수출을 증대시키고 과실가공업을 적극 육성시키고 가능하면 과

실의 군납(軍納) 아동급식(兒童給食)으로도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과실출하조정자금의 증가 장기저리자금의 용자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우리 모두 합심하여 노력하면 1984년도부터는 지금의 과도기적인 불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우리나라 과수농업의 진로는 대단히 밝아지고 과수재배를 통한 풍요로운 농촌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믿는다.

## 농한기를 이용해 빈병을 수집합시다 !

쓰고난 농약 빈병을 논두렁·밭두렁 또는 하천주변에 함부로 방치하는 농민이 아직도 있습니다.

함부로 버려진 농약병은 어린이에게는 잘못 갖고놀다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독물이 될수 있으며 농민에게는 원활한 농작업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볼때는 아름다운 금수강산의 미려한 자연경관을 해치는 농업쓰레기가 됩니다. 우리 모두 자손만대까지 물려주어야 할 우리농촌을 아끼고 사랑하는 애농(愛農)의 정신으로 주변에 버려진 농약빈병을 수집하는데 앞장섭시다.